

SD기법을 통한 송도해안블레길 경관인식에 관한 연구

신민준* · 김영하** · 이기철**

*동아대학교 도시계획 · 조경학과 · **동아대학교 조경학과

I. 서론

지금은 걷기 전성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제주올레길, 지리산둘레길, 북한산둘레길, 남해바래길, 금강산소나무숲길, 소백산자락길 등 걷기 좋은 장소가 만들어지고 사랑받고 있다. 이러한 길을 걸으며 연속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관 중에 인상적인 경관을 체험하는 순간, 그 경관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한 장면의 경관으로 인식된다. 여러 개의 길들 중 이러한 인상적이고 의미 있는 경관 포인트를 연결하는 길이 걷고 싶고, 가고 싶은 길이 될 것이므로 걷기 좋은 길 선정에 있어 경관은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걷기 좋은 길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걷기 좋은 길의 조성 전과 후의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조성 전 연구는 길을 만들기 위한 조성방안과 계획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고, 조성 후 연구는 조성된 길로 인한 사회·문화적,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이용문제점 및 이용자 관련연구, 식생 현황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길을 만들기 위한 조성방안과 계획에 대한 연구는 '북한산국립공원둘레길 조성계획 연구'(한봉호 등, 2010), '북한산국립공원우이령길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탐방로 조성방안 연구'(조우 등, 2009)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조성된 길로 인한 사회·문화적,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제주올레길이 인근토지 가격 상승률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이동원 등, 2014), '지리산둘레길의 환경 및 사회·문화적 효과 분석'(한상열, 2013)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용문제점 및 이용자 관련연구는 '숲길 특성에 따른 이용자의 이용행태 비교에 관한 연구'(손지원 등, 2012), '속리산국립공원내 낙영산 탐방로의 훼손실태에 관한 연구'(안태원 등, 2005)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식생 현황에 관한 연구는 '주왕산 국립공원내 탐방로 주변의 식물상과 특성'(유주한, 2011), '월악산국립공원 탐방로의 주변부 식생'(최송현 등, 2005)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걷기 열풍이 불고 있는 현시점에서 부산의 걷기 좋은 길에 관한 연구와 걷기 좋은 길의 경관인식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의 걷기 좋은 길 중 하나인 송도해안블레길을 대상으로 경관인식을 알아보고 걷기 좋은 길 조성에 있어 고려해야 할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송도해안블레길의 경관변화를 고려하여 진행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송도해수욕장에서 ① 해수욕장 경관, 송도해수욕장~송도해안산책로에서 ② 방파제, ③ 선착장 경관, 송도해안산책로에서 ④ 다리, ⑤ 해안, ⑥ 절벽, ⑦ 녹지 경관, 암남공원에서 ⑧ 바다 경관, 두도전망대에서 ⑨ 섬 경관, 암남공원로에서 ⑩ 도시 경관 총 10곳을 선정했다.

SD기법을 통해 선정된 장소¹⁾의 경관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의 경관형용사 '질서가 있는-질서없는', '편안한-불안한', '자연스러운-인공적인', '밝은-어두운', '통일된-다양한', '평범한-독특한', '개방감 있는-폐쇄된', '정적인-동적인', '시원한-답답한', '친근감 있는-친근감 없는', '단순한-복잡한', '아름다운-추한', '상쾌한-불쾌한', '따뜻한-차가운', '조화로운-부조화로운' 15쌍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송도해안블레길을 체험한 조경학과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분석은 사회과학 통계 패키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21을 사용하여 조망경관별 경관구성요소 분석과 경관형용사평균값 분석을 실시했다.

III. 분석결과

조망 경관별 경관 구성요소에 따라 인공요소가 10% 이하인 해수욕장, 해안, 녹지, 바다, 섬 경관들을 자연적 경관 유형으로, 인공요소가 10% 이상인 방파제, 선착장, 다리, 절벽, 도시 경관들을 인공적 경관 유형으로 분류했다.

자연적 경관 유형은 '개방감 있는-폐쇄된'(4.38), '시원한-답답한'(4.37) 항목에서 형용사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개방감 있는-폐쇄된' 평가에서는 바다 경관(4.65)과 해수욕장 경관(4.63)이 높게 평가되었고, '시원한-답답한' 평가에서도 해수욕장 경관(4.65)이 가장 높게 평가 되었다. 반면 '따뜻한-차가운'(2.93) 항목에서는 바다의 경관 구성비가 44.17%인 바다 경관(2.23)이 가장 낮게 평가 되어 차가운 이미지로 경관인식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자연적 경관 유형은 천공의 경관 구성비가 50% 이상이고, 자연요소의 경관 구성비가 약 45%일 때 이용자들이 경관인식에 있어 개방감 있고, 시원한 이미지로 경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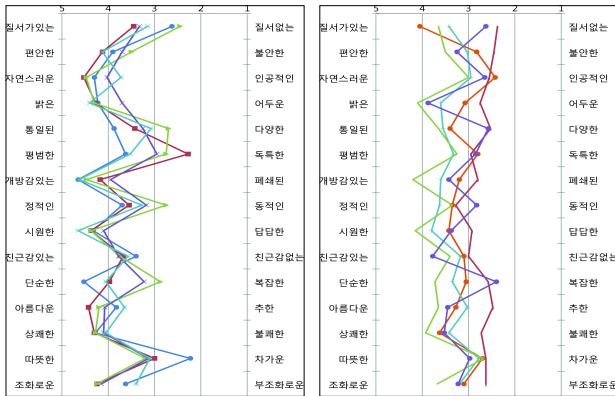


그림 1. 자연적 경관 형용사 점수표
 범례: ● 바다 ■ 섬 ▲ 해안
 ▼ 녹지 ◆ 해수욕장

그림 2. 인공적 경관 형용사 점수표
 범례: ● 절벽 ▲ 방파제 ■ 선착장
 ▼ 다리 ◆ 도시

인식하므로 충분한 천공의 확보와 자연요소와의 균형이 개방감 있는 경관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그림 1 참조).

인공적 경관 유형은 '시원한-답답한'(3.54) 항목에서 인공요소의 경관 구성비가 10.05%로 가장 낮은 다리 경관(4.15)이 가장 높게 평가 되었다. 반면 '따뜻한-차가운'(2.75), '자연스러운-인공적인'(2.72) 항목에서 형용사평균값이 낮게 나타났다. '따뜻한-차가운' 평가에서는 바다와 인공요소의 경관 구성비 합계가 45.17%로 가장 높은 선착장 경관(2.63)이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자연스러운-인공적인' 평가에서는 인공요소 경관 구성비가 37.50%로 가장 높은 절벽 경관(2.43)이 가장 낮게 평가되어 인공적인 이미지로 경관인식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인공적 경관 유형은 인공요소가 30% 이상의 경관 구성비를 가지지 못 할 때에는 경관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2 참조).

송도해안블레길의 경관형용사에 의한 경관인식을 살펴보면 인공요소가 30% 이하이고, 개방성이 확보된 천공과 자연요소가 균형있게 구성된 섬 경관(3.88), 바다 경관(3.80), 해수욕장 경관(3.75), 녹지 경관(3.64), 해안 경관(3.62), 다리 경관(3.59), 방파제 경관(3.32), 절벽 경관(3.16), 도시 경관(3.12), 선착장 경관(2.70) 순으로 긍정적인 경관 인식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경관요소들의 균형있는 구성과 함께 개방성 있는 천공의 확보가 긍정적인 경관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할 수 있다.

IV.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부산의 걷기 좋은 길 중 하나인 송도해안블레길의 경관인식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자연적 경관이 인공적 경관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경관요소들의 균형 있는 구성과 함께 개방성 있는 천공의 확보가 긍정적인 경관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긍정적인 경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을 분류한 결과 균형성, 개방성, 통일성 3가지 요인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걷기 좋은 길의 선정에 있어 천공이 확보된 개방적 경관이나 천공과 자연요소가 균형 있게 구성된 경관, 인공요소가 30% 이하인 경관으로 이루어진 경관 포인트들을 우선 선정하여 연결하면 이용자들이 길을 이용함에 있어 경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져 걷고 싶고, 가고 싶은 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경관을 고려한 걷기 좋은 길의 조성에 있어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주 1. 선정된 경관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각도에서 1020만 화소 Nikon D3000 DSLR 카메라로 사람의 시야와 가장 유사한 35mm 렌즈를 통해 성인 남자의 눈높이 1.6m 높이에서 촬영한 사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참고문헌

1. 노영란(2008) 해안경관 구성요소의 이미지평가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 손지원, 하시연(2012) 숲길 특성에 따른 이용자의 이용행태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임학회지 101(2): 309-316.
3. 안태원, 강현진, 정정희, 김명옥(2005) 속리산국립공원내 낙영산 탐방로의 훼손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지 2005(2): 41-47.
4. 유주한, 문성주, 정철은, 정성철(2011) 우왕산국립공원 내 탐방로 주변의 식물상과 특성. 한국산림휴양학회지 15(3): 49-60.
5. 이동원, 정수연(2014) 제주 올레길이 인근토지가격상승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제주 올레7코스를 대상으로. 부동산 연구 24(1): 63-76.
6. 임승빈(1991) 경관분석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7. 조우, 김지석, 김종엽, 이경재(2009)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탐방로 조성방안 연구.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지 2009(2): 111-114.
8. 주신하, 이승희(2012) 경관형용사를 이용한 도시하천 경관특성 연구: 청계천과 양재천을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47(4): 49-63.
9. 최승현, 오규균, 조현서, 강현미(2005) 월악산국립공원 탐방로의 주변부식생.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지 2005(2): 37-40.
10. 한봉호, 최진우, 유기준, 노태환(2010)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조성계획 연구.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지 2010(1): 193-197.
11. 한상열(2013) 지리산둘레길의 환경 및 사회·문화적 효과 분석. 한국산림휴양학회지 17(1): 21-26.